

보도 일시	2022. 8. 1. (월) 조간 2022. 7. 31. (일) 11:00	배포 일시	2022. 7. 29. (금) 오후
담당 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참돔과 오징어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마을과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붉은바다거북을, ④등대로 경기 화성시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모형선을,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나치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참돔, 오징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더위를 날려줄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돔과 오징어를 선정했다.

도미과에 속하는 돔은 주로 횡감으로 사용하는 고급 어종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 뽕에돔이 있다. 돔 중에 으뜸인 참돔은 '바다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며, 어두일미(魚頭一味,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는 머리)라는 말이 참돔에서 유래될 만큼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생선이다.

참돔은 회로 먹어도 좋지만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매력적인 매운탕과 달콤한 맛과 짭 맛의 묘미를 살린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오징어는 회로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먹으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징어에 삼겹살, 양파, 버섯 등을 넣고 매콤하게 볶은 요리도 일품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8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참돔과 오징어로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도 덤으로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거제 다대마을과 전남 고흥 연흥도마을

8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마을과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마을, 두 곳을 선정하였다.



다대마을 전경



연흥도마을 전경

먼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다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 중 하나로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과 기암절벽 등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다. 실내에서는 조개껍데기를 활용해 액자와 목걸이를 만드는 조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고, 갯벌체험장에서는 바지락, 맛조개 등 신선한 바다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다대마을의 별미인 멧게 비빔밥을 먹은 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나무 데크 산책로를 걸으면 푸른 바다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또한, 차로 10분 거리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변화된 어촌마을을 직접 걸으며 느껴볼 수 있는 ‘2022 어촌뉴딜 트래킹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학동항도 있어 다양한 체험과 함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 약 4km 내외의 코스를 직접 걷고 인증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4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

전라남도 고흥군 연흥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 전체에 벽화와 조형물이 전시되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바다와 어우러지는 돌레길, 벽화길 뿐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 만들어진 미술관의 전시품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양초 만들기 체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를 활용해 화분 등을 만들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지역 대표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무더운 8월, 한적한 어촌에서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붉은바다거북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되는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붉은바다거북은 해양파충류로, 등갑 길이는 약 80~105cm이며, 몸무게는 약 135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종이다. 체구에 비해 큰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잡식성으로 어류, 갑각류, 해파리 등을 먹는다.

붉은바다거북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서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서해안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그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붉은바다거북을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으로 지정하였고, 해양수산부도 2012년 붉은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안에 좌초·표류되어 구조·치료된 개체 및 인공증식을 통해 부화된 개체를 매년 해양에 방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종이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이 붉은바다거북에게 소중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 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



해양수산부는 8월의 등대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 테마어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야간에 6초마다 연속 2번 빨간색 불빛을 깜박이며, 전곡항과 서해를 오가는 어선과 요트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2009년 12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제부도와 일몰 사진이 멋진 누에섬이 있으며, 제부도와 연결된 약 2k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어 전곡항을 방문하면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두루두루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돌로 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체험과 바지락 캐기, 망둥어 낚시,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한편, 전곡항은 1994년 2월에 시화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국내 최초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조성된 다기능 테마어항으로, 수도권에서는 버스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밀물과 썰물의 영향이 적어 요트가 드나들기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2011년 11월 요트와 보트 200여 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의 마리나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연포탕을 꼽을 수 있다. 해물 육수에 박숙과 무, 대파, 미더덕을 넣고 육수가 끓을 때 낙지를 넣어 살짝 데쳐 먹는 연포탕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음식이다. 이외에도 바지락, 동죽, 꽃게, 쭈꾸미, 놀래미,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바다 내음 나는 시원한 해산물 칼국수도 맛볼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모형선



현대 | 405×61×37, 395×70×37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KRISO 기증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기증받은 시험용 모형선을 선정하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지난 50여 년 간 선형시험수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실제 선박을 축소한 2,000척 이상의 다양한 모형선을 제작해 성능 시험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기증받은 2점의 모형선은 2011년과 2014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모형선으로 원유운반선(KVLCC2)과 액화천연가스운반선(KLNG)을 각각 83.74분의 1, 69분의 1 크기로 줄인 것이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는 이 모형선을 활용해 저항추진시험, 조종성능시험, 내항성능 시험 등 다양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이 모형선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전시되면서 바다와 바다를 매개로 우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의 위상을 상징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모형을 비롯한 해운·항만자료 및 해기사, 도선사 등 선원, 어민, 어시장 노동자들의 각종 항해·어업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사랑하는 부부의 애뜻함이 서린, 나치도



해양수산부는 8월의 무인도서로 충청남도 태안군 꽃지해변에 인접한 나치도 (꽃지 할미·할아버바위)를 선정하였다.

이 섬에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했던 부부의 애달픈 전설이 내려온다. 신라 후기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때 이 곳 출신의 승언이라는 기지사령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급히 출정한 승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 후 폭풍우가 크게 치던 날 큰 바위섬이 새로 떠올라 지역주민들이 그 바위를 할미·할아버바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을 이름도 승언리로 지었다고 한다.



할미바위(왼쪽), 할아비바위(오른쪽)

또한, 이 섬은 썰물 때 드러나 탐방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북 변산의 채석강, 인천 강화의 석모도와 함께 '서해안의 3대 낙조 명소'(서해안 낙조 명소로 명승 제69호로 지정, 문화재청)로 꼽힌다.

나치도는 바닷물이 닿는 섬의 아래 둘레엔 다양한 지질 현상이 나타나 갯벌 생물과 지질,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는 데 좋은 장소이다. 지각의 융기, 단층 등 지각변동이 이루어진 모습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 바위 표면에 벌집 모양으로 뚫린 구멍은 염분으로 풍화한 타포니(Tafoni)와 바다 생물이 분비한 산성 물질로 뚫린 구멍인 '보링셸(Boring Shell)' 등 다양한 현상들이 관찰된다.



할아비바위 암맥의 단층, 융기



보링셸(Boring Shell) 구멍과 게, 고둥

나치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남우진 (044-200-5013)
		담당자	서기관	이진우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실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최종욱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정식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실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태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실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8월
이달의 수산물

참돔

(red seabream)



돔은 주로 횡걸로 사용하는 고급 어종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 뽕돔이 있다. 돔 중에 으뜸인 참돔은 '바다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며, 어두일미(漁頭一味,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는 머리)라는 말이 참돔에서 유래될 만큼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생선이다.

출처: 국립수산물시험원

열량

(Calorie)

82 kcal

수분

(Moisture)

79.3 g

지방

(Fat)

0.1 g

단백질

(Protein)

18.4 g

회분

(Ash)

1.4 g

칼슘

(Calcium)

33 mg

인

(Phosphorus)

270 mg

철

(Iron)

0.5 mg

니아신

(Niacin)

4.8 mg

류신

(Leucine)

1,800 mg

아르기닌

(Arginine)

1,050 mg

라이신

(Lysine)

1,856 mg

8월
이달의 수산물

오징어

cuttlefish



오징어는 동의보감에 혈을 보강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쓰여있다. 먹물이 있어 묵어(墨魚), 까마귀를 먹는 도적이란 뜻의 오적어(烏賊魚)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오징어는 타우린이 풍부하며 피로회복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열량	수분	지방	단백질
(Calorie)	(Moisture)	(Fat)	(Protein)
72 kcal	82.3 g	0.5 g	15.7 g

회분	칼슘	인	철
(Ash)	(Calcium)	(Phosphorus)	(Iron)
1.3 g	25 mg	253 mg	1.6 mg

타우린	셀레늄	아르기닌	베타인류
(taurine)	(Selenium)	(Arginine)	(Betaine)
658 mg	28 ug	1.247 mg	925.4 mg

8월 이달의 수산물

여름 바다의 맛
참돔, 오징어
더 알고 싶어?



참돔

'바다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난 생선
회, 매운탕, 조림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고급어종

오징어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좋은 톡톡튀는 맛있는 오징어!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2022년 08월



바다와 기암절벽의 조화가 아름다운 마을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중 하나로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다. 조개껍데기와 씨글라스를 활용한 조개 공예 체험과 맛조개를 직접 잡을 수 있는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멍게 비빔밥은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 별미이다. 식사 후에는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나무 데크 산책로에서 푸른 바다를 느낄 수 있다.

체험: 갯벌 체험, 조개 공예 체험

먹거리: 광어, 농어, 전복

주변 관광지: 신선대, 해금강, 외도보타니아, 학동흑진주몽돌해변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100-6 ☎ 055-633-1064 🌐 <http://www.dadaeri.co.kr/>



눈길이 닿는 곳에 예술작품이 있는 연홍도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도마을은 마을에 벽화와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여행지이다. 마을에는 양초 만들기 체험과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를 활용하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지역 대표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체험: 캔들 만들기 체험, 해양쓰레기 재활용 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 어트랙티브 미디어 체험

먹거리: 멸치, 다시마

주변 관광지: 거금대교,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연홍길 23 ☎ 010-5064-0661 🌐 <http://www.연홍도어촌체험마을.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해양수산부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발 넓은 여행가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해양파충류이며, 큰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평균 등갑 길이는 80~105cm이고 최대전장이 213cm까지 자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몸무게는 약 135kg까지 성장하는 등 대형 바다거북 종이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어류, 갑각류, 해파리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붉은바다거북을 2012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 등 넓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태평양에서 가장 큰 개체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과 남해안 및 동해안 등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서해안에서도 드물게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주도 일부 해역에서는 산란기록도 보고된 바 있다.



Caretta caretta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붉은바다거북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전곡항 테마어항 방파제 등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전곡항은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다기능 테마어항이다. 또한, 화성시 서신면과 안산시 대부도를 잇는 방파제 덕분에 물때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여 배가 드나들기 수월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수도권에 처음으로 마리나를 개장한 이곳은 세계 3대 요트대회 중 하나인 월드매치레이싱투어와 더불어 경기국제보트쇼, 전국해안스포츠포럼 등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낸 수도권 요트 메카이다.

전곡항 방파제에 설치된 빨간색 '전곡항 테마어항 방파제 등대'는 밤이 되면 6초마다 2번 빨간 불빛을 반짝이며 전곡항을 오가는 다양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다.

이곳에서 요트와 유람선 체험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기기도 가능하며, 누에섬 뒤로 펼쳐지는 낙조의 경관은 화성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9월에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어패류가 생산되어 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요트와 등대가 자아내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일몰이 더해진 전곡항은 관광객들의 발길과 눈길을 동시에 사로잡으며 해양 관광지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주변 관광지

- 용천동
- 용주사
-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 공평리
- 계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 남양성모성지
- 우리꽃 식물원
- 궁룡알 화석산지



주변 먹거리·낙지

연한 두부를 끓인 탕에서 유래된 연포탕은 소금 양념과 낙지로 끓이는 시원한 탕이다. 해물 육수에 박숙과 무, 대파, 바지락, 미더덕을 넣고 육수가 끓을 때 낙지를 넣어 살짝 데친 뒤 바로 건져 연한 맛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머리로 알고 있는 몸통에는 먹물이 있기 때문에 낙지가 연분홍빛으로 익었을 때 다리를 먼저 먹고 국물을 즐긴 뒤 나중에 건져 먹어야 한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2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19~2022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50번째마다 스탬프를 찍은 참여자와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2019~2021 시리즈도 참여 가능!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홈페이지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8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모형선



현대 | 405×61×37cm, 395×70×37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 KRISO 기증

8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기증받은 시험용 모형선을 선정하였다.

KRISO는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50여년간 선형시험수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2,000척 이상의 실제 선박을 축소한 다양한 모형선을 제작해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용 모형선이란 선박의 건조를 들어가기에 앞서 선박의 유체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실제 선박의 1/30, 1/40로 축소 제작한 선박이다. 성능시험은 선박의 저항추진시험, 조종성능시험, 내항성능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증받은 2점의 모형선은 KRISO에서 개발한 표준선을 2011년과 2014년 성능시험을 위해 직접 제작한 원유운반선(KVLCC2)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KLNG)의 모형선이다. 모형선은 목재를 사용해 실제 선박의 외관 형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며, 추가적으로 방향타와 프로펠러 등이 함께 제작된다. 외형 가공이 끝나면 목재표면에 방수처리와 도장작업을 마치고 시험에 사용된다. KRISO의 모형선은 항해 중 발생하는 파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의 보색인 노란색으로 대부분 제작된다. 완성된 모형선은 KRISO의 다양한 연구시설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KRISO에서 기증받은 모형선박들은 세계 최고 선박건조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귀중한 전시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선박모형을 비롯한 해운·항만자료 및 해기사, 도선사 등 선원, 어민, 어시장 노동자들의 각종 항해·어업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2022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나치도(꽃지 할미·할아버지바위)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 산28에 위치한 2개의 무인도서이다. 방포항에서 0.26km 떨어진 곳에 있는 나치도는 면적 약 2,656㎡이며, 태안의 꽃지해변과 인접해있다. 섬의 명칭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828년(충무왕3)에 창고기가 침해를 기점으로 주둔하였을 때, 그에게는 승언이라는 부하가 가지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들 내회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급히 출장한 승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사망했다. 후에 아내가 죽은 곳이 바위로 변화했다. 그 후 밤새 폭풍우가 몰아친 날, 큰 바위섬이 새로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아내를 찾아온 승언이라고 생각해 이 바위들을 할미·할아버지바위라 이름 붙였고, 인근 마을 이름은 승언리라 불린다.

바닷물이 달는 섬의 아래 돌레엔 다양한 지질 현상이 드러난다. 커커이 층을 이룬 홀모래가 깔려 굳은 퇴적암의 지층은 처음 생성될 때, 수평적 층을 보이던 오랜 시간 지각변동에 의해 굽기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지층의 구조를 보이기도 하며, 지층이 굳어져 이동한 단층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바위 표면에 벌집 모양으로 뚫린 구멍은 염분으로 풍화된 타포니(Taeponi), 바위 일면에 움푹 들어간 구멍은 바다생물이 분비한 산성 물질로 뚫린 구멍 '보랑셀(Boring Shell)'도 관찰된다. 나치도는 갯벌 생물과 지질, 자연 관찰 공부에도 좋은 곳이다.

나치도는 아름다운 일출 경관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서해 낙조 명소로 2009년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었다.

나치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of.go.kr | blog.naver.com/koreamof | www.facebook.com/pg/mofkor/photos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태안

